

TMON

magazine

JANUARY 2012 Vol. 8

HOT
CHOCOLATE
CAFE

MULTI
Shopping
Center

Sunrise
in Seoul City

Interview
공유와
공명하다



PERCHÉ

ALL SHOES

₩49,900



with *Miranda Kerr*

www.PERCHE.co.kr
GAROSUGIL Boutique 02.542.8542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생명의 기적

access to life

2011.12.23 - 2012.3.4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인류에

가족에

우정

으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Jim Goldberg

매그넘 8명사진작가 & 글로벌펀드 세계순회사진전

주관: (주)유로크레온/한국매그넘에이전트 (주)제이코컴퍼니, 갤러리아트사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문의 02-2277-2438
미디어협찬: 사진예술, PHOTO+, 월간사진, 미술세계 후원: 한국사진기자협회 www.access2olife.seoul.kr

주최:



협찬:



* 다음에서 [매그넘사진전](#) 을 검색하세요.

오늘은 뭐가 ^{50%} 떴을까?



“컴온!”

TMON
티몬

contents

Vol. 8
JANUARY 2012
TMON
magazine

- 04 Place**
복합쇼핑몰 탐방기
- 11 Car**
내 인생의 마이카
- 14 Interview**
공유와 공명共鳴하다
- 20 Travel**
서울시내 일출 명소
- 23 Drink**
핫초콜릿 카페
- 26 Food**
이글이글 후끈한 철판열전
- 28 Dr. Tmon**
2012년에도 잘 먹겠습니다!
- 30 Culture**
- 32 Fashion**
뒤집어라, 앞어라~
- 33 Tmon News**
- 34 Item**



발행인 이관우 편집인 이관우

등록번호 송파라00114 발행처 ㈜데일리픽(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0 루터회관 10층) 인쇄 ㈜동광인쇄
기획/편집 티켓몬스터커뮤니케이션팀 조윤아 yoon@tmon.co.kr 이민정 mjlee@tmon.co.kr 박재훈 penny22@tmon.co.kr 장진아 jeana0425@tmon.co.kr

디자인 Design NIRVANA 사진 티켓몬스터 사진팀 표지사진 최용빈

문의 070-7865-5069 이메일 magazine@tmon.co.kr 블로그 blog.naver.com/tmonster 트위터 @tmonkr 페이스북 www.fb.com/tmonkr

<티몬매거진>에 관한 모든 문의(배포, 광고, 콘텐츠 등)는 티켓몬스터커뮤니케이션팀(magazine@tmon.co.kr)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티몬매거진>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의 모든 내용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티몬매거진>은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발행합니다.

<티몬매거진> 배포처 1호선 서울역, 시청역, 종각역, 중로3가역 2호선 건대입구역, 강변역, 잠실역, 신천역, 삼성역, 선릉역, 역삼역, 강남역, 교대역, 사당역, 서울대입구역, 신림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대림역, 신도림역, 문래역, 영등포구청역, 합정역, 홍대입구역, 신촌역, 이대역, 시청역,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 3호선 동대입구역, 압구정역, 신사역, 고속터미널역, 양재역 4호선 사당역, 숙대입구역, 명동역, 충무로역, 혜화역, 성신여대입구역, 미아역, 수유역 아름다운 커피 안국점, 여의도점, 세정점, 단국대점 KB 락스타 ZONE 광운대, 경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서울과학기술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경기대, 경희대(수원), 단국대, 수원대, 아주대, 인하대

길고 지루한 겨울, 내 하루를 책임져줄

복합쇼핑몰 탐방기

더 이상 테라스 카페에서 수다를 떨 수 없는 날씨가 아쉬워하지 말자. 길고 긴 겨울, 하루 날을 잡고 온종일 보내기 딱 좋은 곳이 있으니 먹고 놀고 즐길 거리를 뷔페처럼 마련해놓은 거대한 놀이터, 게다가 교통도 편리한 복합쇼핑몰 3곳을 탐방해봤다.

에디터 이재연 포토그래퍼 문효정 일러스트 하선경



1

거대하고 화려한 만물상

영등포 타임스퀘어

루이비통, 프라다 등 이전의 영등포에선 상상할 수 없었던 화려한 이름들을 대거 상륙시킨 타임스퀘어는 쇼핑 가능한 모든 아이템을 제공하는 거대하고 쾌적한 만물상이다. 다녀볼 곳이 너무나도 많은 이곳엔 워킹화를 신고 가자. 지갑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가뭄해줄 것이다.

주소 신세계백화점, CGV, 이마트, 교보문고,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
위치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2/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문의 02-2638-2000, www.timesquare.co.kr



모리츠 빌딩에어 작 <백아>



SHOP

안으로 들어서면 순백의 원형 통로가 층층이 천장까지 이어진 모습이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에 온 듯한 인상을 주는 타임스퀘어의 '아트리움'은 이미 <런닝맨>, <무한도전>의 촬영지가 되며 유명해졌다. 오래 머물러도 답답하지 않도록 중앙 공간을 비워두고 통로도 넓게 설계한 것이 특징. 유니클로의 면 티셔츠부터 루이비통의 신상 락킷 백까지, 김어준의 <다치고 정치>부터 화장실 세계까지, 모든 쇼핑 아이템을 커버하는 200여 개 매장이 아트리움을 감싸고 있다.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심지어 열쇠집과 세탁소도 있다). 일단 명품관엔 주말이면 줄을 서야 하는 루이비통을 필두로 프라다, 구찌, 까르띠에, 티파니 등 20여 명품 브랜드 매장이 자리잡고 있다. 자라, 망고, 빈폴(1층), 유니클로, 코데즈컴바인(지하 2층), 나이키, 아디다스(3층) 등 이제 이런 쇼핑물엔 응당 있어야 할 메이저 의류 브랜드 외에 눈에 띄는 건 2층의 국내 브랜드 파슨스. 뉴욕 파슨스 스쿨 출신의 젊은 패션디자이너들이 모여 만든 이 브랜드는 20대 중-후반 남녀 직장인들을 위한 도시적인 분위기의 포멀캐주얼 아이템을 선보인다. 가격대는 망고와 비슷하데, 세일이 자주 있어 반갑다. 광화문이 부럽지 않은 규모의 교보문고(2층)와 애플 관련 제품 매장인 에이샵(2층) 외에 타임스퀘어가 돋보이는 부문은 생활용품 매장이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일본의 라이프스타일 매장 프랑프랑(2층)과 이랜드그룹의 모던하우스(3층). 이밖에도 룸에(4층), 무인양품(2층), 지하 1~2층 걸쳐 있는 이마트 내 자연주의 매장에서도 괜찮은 디자인의 생활용품과 식기류를 만날 수 있다. 기존의 경방백화점을 합쳐 2개 동으로 구성된 신세계백화점 중 B관은 1층 핸드백, 2층 구두, 3층 스포츠 매장으로 특화된 점도 눈에 띈다.

사진제공 타임스퀘어, CGV

ENJOY

이제는 전국 어디에나 흔한 CGV지만 타임스퀘어의 CGV(6층)는 남다른 위용을 자랑한다. <미션임파서블4: 고스트프로토콜> 개봉 전 톰 크루즈가 다녀간 것으로도 유명한 '스타리움관'은 <기네스북>에서 공식 인증한 세계 최대의 스크린(면적 407.94m)을 지니고 있으며, 이외에 4DX, 골드클래스 등의 특별관도 있다. 헤이리에 첫선을 보인 이래 어린이 전용 테마파크 혹은 키즈카페의 원조가 된 딸기가 좋아(지하2층)는 주말에만 12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타임스퀘어의 핫스팟. 밖에선 그리 커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에어바운스로 된 구름 언덕, 출발 시간에 맞춰 아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수박기차, 풍차미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가 가득했다. 보호자가 동반 입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잠시 아이를 떼어놓고 즐기분하게 쇼핑하고 싶은 엄마들을 위해서 2시간 30분 동안 딸기가 좋아하는 스타프가 '빠빠에 프랑스'라는 미술체험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을 돌봐주는 케어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딸기가 좋아 영수증을 가져가면 타임스퀘어 내 오리옥스, 차이나 플래인 등의 레스토랑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케이 블 채널 Mnet이 운영하는 엠넷팝(5층)은 전 세계 맥주와 함께 매주 금·토·일 인디밴드들의 라이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초대형 맥주집이다. '맥주 먹는 하마'라 자부하는 이들은 1만5000원에 무제한으로 밀러를 마실 수 있는 매주 화요일 '밀러 데이'에 이곳을 찾을 것. 과음했다 싶으면 바깥으로 나가 옥상정원 조형물 사이를 거닐며 바람을 쐬자. 야경이 아름답다.



CGV
온더보더



딸기가 좋아



옥상정원
나무그늘



EAT

눈앞에서 아보카도를 깨어 씨를 빼고 신선한 구아카몰을 만들어 주는 곳. 그것 만으로도 온더보더(지하1층)는 국내에선 획기적인 멕시코 레스토랑이다. 나초 칩과 살사를 무제한 제공하는 것도 기특하고, 치킨퀘사디아, 스테이크나초, 치킨플라우터 등을 한데 담은 보더샘플러에 미니 사이즈 코로나 병을 거꾸로 꽂은 코로나리따를 한 잔 곁들이면 눈까지 즐겁다. 모든 음료는 탄산으로 리필이 가능하다. 3층 아트rium 부근에는 푸드코트 메인디쉬가 있다. 여느 푸드코트에서 접하기 힘든 탄두리치킨, 팔락파리르 등의 인도 요리를 부담 없는 가격에 맛볼 수 있는 뭄바이와 첼판요리집 아키스타가 인기라는 게 푸드코트 캐셔의 귀뜸. 지하 1층의 일본 라멘집 멘무샤도 평일 저녁엔 줄을 서야 하는 맛집이다. 카페 중에선 쇼핑몰 바깥 1층에 따로 자리잡은 북카페 나무그늘이 단연 돋보였다. 타임스퀘어 자리에 경성방직의 공장이 있던 시절, 사무실로 쓰이던 붉은 벽돌 건물을 고쳐 만든 이 카페는 철재와 목재가 드러난 높은 천장이 매력적이다. 음료를 주문하면 종이컵과 잼, 버터를 주는데, 별도의 테이블에 준비된 토스터에서 무제한 빵을 구워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리필할 수 있다.



뭄바이: 커리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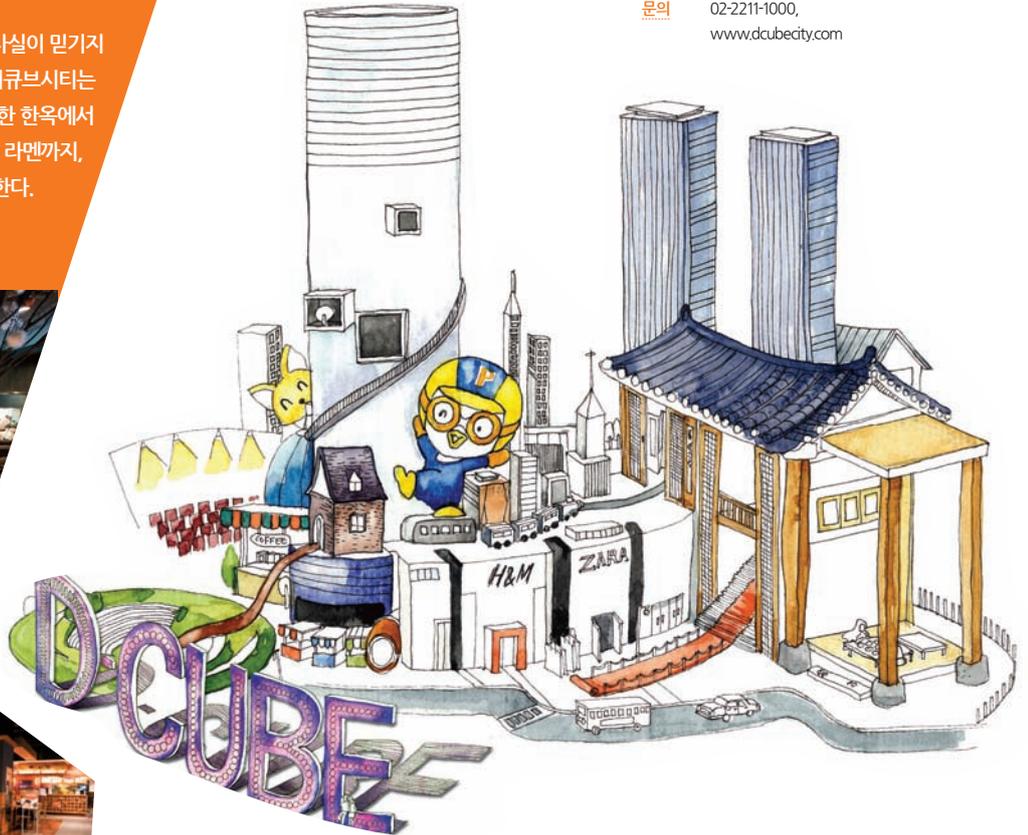
온더보더: 보더샘플러,
구아카몰, 코로나리따

2

이제부터 신도림은 식후경 신도림 디큐브시티

2011년 8월 오픈해 이전에는 연탄공장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도림의 첫인상을 수려하게 바꾼 디큐브시티는 하루에 세끼밖에 못 먹는 게 아쉬운 곳이다. 아담한 한옥에서 받는 한식 상차림부터 <미슐랭> 별을 받은 일본 라멘까지, 디큐브에서는 무얼 하든 일단 먹고 봐야 한다.

주요 시설 디큐브백화점, 디큐브아트센터, 웨라톤호텔, 디큐브파크
위치 구로구 신도림동 360-51번지/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
문의 02-2211-1000, www.dcubecity.com



한식저장거리



EAT

백화점 지하 2층 한식저장거리는 먹거리로 비교 우위를 점하려는 디큐브시티의 전략이 잘 드러난 곳. 사극의 세트장 같은 한식저장거리는 아담한 한옥에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한 끼를 먹을 수도, 주말에서 녹두전에 막걸리를 한잔 걸치기도 좋은 곳이다. 분식거리, 주막거리, 구이거리, 한상차림, 누각 등 5개 섹션에서 부담 없는 가격에 다채로운 한식을 만나볼 수 있다. 5층 전문식당가에선 일본 라멘집 미스트가 눈에 띈다. 일본 라멘 최초로 홍콩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을 받은 맛집으로 국내에선 디큐브시티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는 이곳은 한 달에 한 번 일본 본 점점의 대표가 방문해 맛을 관리한다는데 22시간 끓여낸 육수가 비결이라고. 돈코츠라멘, 소유라멘 모두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식사를 하고 나면 얼른 소화시키고 지하 2층 델리존에 가서 풀이 끊이지 않는 미미네 떡볶이를 먹어야 한다. 흥대 앞에서 명성을 떨치고 디큐브시티로 이사 온 이곳은 유난히 국물이 많은 밀가루 떡볶이에 튀김 부스러기를 뿌려 먹는 게 특징이다. 양념이 잘 밴 떡도, 너무 맵지 않은 국물도, <매트릭스>의 센터벨을 닮은 김말이도 모두 맛있다. 이밖에 각국의 면요리를 선보이는 지하 1층의 월드스트리트푸드, 객잔 분위기에서 중국 각지의 요리를 내놓는 차이나풍(6층)도 디큐브시티의 자랑거리다. 헤이리의 북카페를 축소해 옮겨온 프레스타(지하 2층)의 분위기도 좋으며, 일본에서 들여온 플라워 카페 세인트 조르디(5층)도 볼거리다.



미미네 김말이, 국물떡볶이



미스트 소유라멘, 교자



SHOP

사설보다는 자라, 루이비통보다는 유니클로와 친한 우리에게 디큐브백화점은 참으로 요긴한 쇼핑 공간이다. 여느 백화점이라면 명품 브랜드가 있을 명당 자리에 자라, 유니클로는 물론 H&M까지 나란히 모여 있어 몇 발짝 안에서 비교해보고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자라와 유니클로는 모두 2개 층, H&M은 무려 3개 층에 걸쳐 있어 매장 규모 또한 탄 동네가 부럽지 않다. 이외에도 폴앤베어, 버쉬카, 스트라다바리우스 등의 글로벌 SPA 브랜드가 지하 1층부터 2층에 걸쳐 포진해 있으며, 화장품 브랜드 또한 SK-II나 바비브라운 대신 더페이스샵, 에뛰드 등이 자리해 백화점의 개성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준다. 백화점 외에 별도의 물이 있는 여타 복합쇼핑몰과 달리 디큐브백화점이 이곳의 유일한 쇼핑 공간이다. 좁고 긴 타원형 구조의 백화점 내부는 지하부터 천장까지 중앙이 모두 트여 있고, 덕분에 건넌편이 훤히 내다보여 정말 미국의 쇼핑몰에 온 듯한 인상을 준다. 3층은 남성과 아웃도어, 4층은 아동용품 매장이 자리잡고 있다. 아가사기 한 생활용품이 가득한 지하 2층의 프랑프랑도 꼭 한 번 둘러보자.



본이랜드 作 <VORTEX>



뽀로로파크

디큐브아트센터

세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

프랑프랑

세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

ENJOY

다시 여섯 살이 되어 스머프 마을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기분일까? 아니다, 스머프 따위는 감히 뽀로로의 인기엔 필적할 수 없을 듯. 주말엔 어김없이 늘 매진이 되어 한참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다는 뽀로로파크(백화점 4층)는 디큐브시티 최고의 인기 장소 중 하나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만화를 그대로 옮긴 뽀로로의 집, 볼풀, 에어바운스, 3D애니메이션 상영관 등 구석구석 아이들의 혼을 쏙 빼놓는 놀이거리가 빼곡하다. 애인과 함께 이곳에서 동심에 젖고 싶다면 조카라도 데려갈 것. 어른들끼리는 입장 불가다. 아이들 역시 보호자가 동반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

백화점 7층에는 12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극장 디큐브아트센터가 있다. 무대 장치와 객석, 음향 등 모두 기존의 백화점 아트홀과는 차원이 다른 첨단 공연장인 이곳에서는 1월 한 달간 <맘마미아>가 공연된다. 푸드코트의 영수증을 가져 가면 당일 공연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고. 특1급 호텔인 세라톤호텔은 객실이 29층부터 40층에, 로비는 41층에 자리잡고 있어 전망도 특1급이다. 특히나 국내에서 가장 높이 위치했다는 28층 수영장에서 야경을 보며 수영하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하다. 1월 말까지 뽀로로파크 입장권이 포함된 1박 2만원짜리 '뽀로로와 놀자!' 패키지 행사가, 뷔페 레스토랑 피스트에서는 3월 말까지 매주 월화수요일에 여성들끼리만 온 점심 고객에 한해 25%를 할인해주는 '레이디스 런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자.

사진제공: 디큐브백화점, 디큐브아트센터, 세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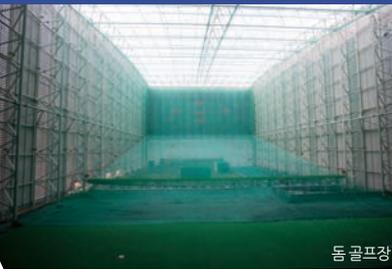


ENJOY

먹고 쇼핑하는 것 외에 하루를 따로 또 같이, 각자의 취향에 맞춰 즐기고 싶은 가족들을 위해 비트플렉스는 다른 쇼핑몰에서는 보기 드문 즐길 거리를 마련해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상 6층에서 8층에 걸쳐 위치한 포시즌 워터파크. 복합쇼핑몰 안에 들어선 워터파크인 만큼 캐리비안베이나 오션월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한나절을 신나게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겨울 동안 워터파크는 주말에만 개장하는 대신, 5층의 사우나와 4층의 찜질방은 24시간 운영한다. 찜질방은 매우 넓고 쾌적한 규모로 특히 1인용 황토굴이 인기. 6층에서 9층까지 자리한 돔골프장은 천장이 돔 형태로 추위와 바람의 영향 없이 연습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주말에는 자리잡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인기라고. 7층에는 라운딩을 할 수 없는 겨울철에 가장 인기인 스크린골프 존도 마련돼 있다. 4층에 위치한 CGV 왕십리 역시 아이맥스, 스위트박스, 골드클래스, 4DX를 갖춘 프리미엄급 멀티플렉스. 지난해 12월에 장동건과 오다기리조, 판빙빙 등이 참석한 <마이웨이>의 시사회와 레드카펫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기념사진 촬영할 곳을 찾는다면 쇼핑몰 앞 광장의 <날개> 벽화로 가자. <1박2일>에서 이승기 인증샷을 찍은 종로구 이화동의 <날개> 벽화가 유명세를 타면서 방문객들이 늘어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작가 김주희 씨가 원작 벽화를 지우고 이곳에 새로이 그린 것이다.



포시즌 워터파크



돔골프장



테라스 푸드코트



<날개> 벽화



3



아이들은 물놀이, 엄마는 찜질방, 아빠는 골프! 왕십리 비트플렉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중앙선이 교차하는 왕십리역에 세워진 비트플렉스는 코레일과 민간자본이 공동 투자해 만든 민자역사 겸 복합쇼핑몰이다. 전철역 건물이라는 특성상 화려하진 않지만 워터파크와 찜질방, 골프연습장 등의 레저 공간으로 차별화된 즐거움을 선사한다.

주요 시설 엔터스스, 이마트, CGV, 포시즌워터파크, 돔골프
위치 성동구 행당동 168-1 / 지하철 25호선, 중앙선 왕십리역
문의 02-2200-1003, www.bitplex.co.kr

EAT

촬영을 위해 개점 시간인 오전 11시 30분에 맞춰 3층 마리스코를 방문하니 평일 인데도 문을 열기 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트플렉스 최고의 인기 맛집인 마리스코는 초밥, 회 외에도 다양하고 맛깔스러운 한식, 중식, 타이 요리를 선보이는 시푸드 뷔페다. 저녁 뷔페에 나오는 주꾸미떡볶음, 점심저녁 모두 서빙되는 클램차우더 수프도 맛있다. 디저트 섹션의 케이크는 아지자기한 크기라 이것저것 맛보기 좋다. 2층의 아이사누끼우동은 놀랍도록 맛있는 면발로 유명하다. 평일에도 식사 시간에는 줄을 서야 한다는데, 현재 비트플렉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손으로 만든 탱탱한 우동면을 100% 즐기려면 육수 없이 짜유와 무즙에 비벼 먹는 붓가케우동을 먹어볼 것. 일식 소고기덮밥 규동도 인기 메뉴다. 4층의 철판 부대찌개브라더스도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 출출할 땐 다양한 감자튀김을 먹어보자. 4층 푸드코트에 아이리쉬 포테이토가, 지하 1층 엔터식스에는 티타카카가 있다. 아이리쉬 포테이토는 다양한 소스에 찍어 먹는 프렌치프라이가, 티타카카는 프렌치프라이 외에도 생강자를 튀긴 감자칩과 바삭한 해시브라운이 맛있다. 멀리 싱가포르에서 건너온 최고의 육포집 비첸향(4층)도 놓쳐선 안 된다. CGV에서 영화를 볼 계획이라면 숯불에 구운 달착지근한 돼지고기 육포를 사 들고 올라가면 좋을 듯. 카페로는 음료를 주문하면 토스트와 커피 리필이 가능한 나무그늘이 3층에 있고,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지하 1층, 커피빈(1층), 파스쿠치(2층) 등이 있다.



아이사누끼우동:
돈부리, 붓가케우동

아이리쉬 포테이토

티타카카



마리스코
엔터식스

아이사누끼우동

비첸향

엔터식스 엔터식스

SHOP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와 달리 비트플렉스에는 백화점이 없고, 쇼핑 공간의 인상 역시 대기업이 참여한 쇼핑몰만큼은 화려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대신 패션으로 특화된 쇼핑몰 엔터식스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거대하게 자리잡고 있다. 매장은 유럽의 거리 풍경을 주제로 한 5개의 에비뉴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1층은 나이키, 뉴발란스, 노스페이스 등 남성스포츠아웃도어 매장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지하 1층에는 미쏘, 르샵, 지오지아 등의 여성 캐주얼과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이밖에 유니클로가 1층에, 망고가 지하 1층에 자리한다.

절반은 24시간 영업하는 이마트로, 나머지 절반은 쇼핑과 외식 공간으로 나뉘는 비트플렉스의 3층은 밀리오레와 테크노마트가 섞인 듯한 어색한 인상이다. 화장품 매장 미샤와 이니스프리 외에 신발매장 ABC마트가 있고, 그밖에 의류와 패션잡화, 시계와 주얼리를 파는 소규모 매장이 모여 있다. 그 곁으로 소규모 핸드폰 매장 20여 곳이 다닥다닥 모여 호객 행위를 하고 있으며, 애니클 서비스센터가 제법 규모 있게 자리잡고 있다. 보통 푸드코트가 지하에, 여성의류가 2-3층에 위치하는 일반 백화점과 공간 구성이 다른 이유는, 밝은 곳에서 전망을 즐기며 식사할 수 있도록 차별화한 때문이라고. 지상 모든 층에 주차장이 있어 접근이 쉬운 것 또한 기존 백화점과는 다른 비트플렉스만의 장점이다.





내 인생의 첫 마이카

처음은 늘 신중한 법. 운전하기 편하고 경제적이면서도 특별한 디자인까지 갖춘 그런 자동차, 어디 없을까?
에디터 장진아 도움말 최민관 (자동차 칼럼니스트)



엔진	471통 DOHC
배기량	1798cc
표준연비	14.6km/l
최고출력	120마력
최대토크	16.8kgm
가격	2190만원부터



태생부터 스타일리시 박스카를 표방하고 등장한 아이코닉한 차다. 수입차 중 가장 저렴한 가격대인 데다 유지비용도 '의외로' 적게 든다. 자신의 개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직장 여성에게 특히 잘 어울릴 듯.

추천! 합리적인 가격과 잔고장 없는 품질을 갖춘 최고의 시티카!

글썽! 도심에서는 최고겠지만 고속도로를 다니기엔 아직 부족하다.

닛산 큐브



기아 레이



엔진 카파 1.0 가솔린
 배기량 998cc
 표준연비 17.0km/ℓ
 최고출력 78마력
 최대토크 9.6kgm
 가격 1240만원부터



‘신개념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라는 장르를 달고 최근 출시된 기아차의 야심작. 통보이 콘셉트의 외관 디자인과 넓은 실내, 1000cc 이하 경차가 얻을 수 있는 혜택까지, 사회 초년생 여성들에게 어필할 매력으로 가득 채웠다.

추천! 경차답지 않은 근사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유지비, 속도에 치중하지 않은 운전 감각은 장점.

글썸? 그래도 경차인자라 힘이 달리는 건 어쩔 수 없다. 동급 모델 대비 가격이 비싼 것도 단점.

쉐보레 아베오



엔진 4기통 DOHC
 배기량 1600cc
 표준연비 17.3km/ℓ
 최고출력 114마력
 최대토크 15.1kgm
 가격 1130만원부터

쉐보레의 대표 모델은 스파크지만, 남다른 차를 찾는다면 아베오도 체크해볼 만하다. 많이 팔리지 않은 희소성 높은 모델이긴 하지만, 스파크보다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성능을 자랑한다. 아베오 중에서도 맛있는 세단보다 스타일리시한 해치백을 우선 고려하길.

추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월하다는 점과 희소성, 완성도 높은 패키지는 장점.

글썸? 다소 과격한 디자인. 게다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모델이긴 하다.



현대 i30



엔진	I4 1.6 VGT
배기량	1591cc
표준연비	20.0km/l
최고출력	128마력
최대토크	26.5kg-m
가격	1895만원부터

2007년 처음 출시됐을 때 해치백 열풍을 일으켰던 i30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도로 위 눈길을 잡아끄는 차 중 하나다. 실험적인 디자인 코드를 내세운 현대의 최신작으로, 유러피언 해치백을 겨냥해 만들었다. 남녀노소 두루 호감을 갖는 차종이기도 하다.

추천! 내외부의 디자인과 주행감, 주요 사양은 확실히 업그레이드됐다.

글썸? 유러피언 해치백을 겨냥해 가격도 그만큼 올렸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

폭스바겐 골프 카브리올레



엔진	미정
배기량	미정
표준연비	미정
최고출력	미정
최대토크	미정
가격	3000만~4000만원대



BMW 미니 쿠페와 폭스바겐 골프. 분위가 좋은 차와 색다른 끌리는 차를 나눈다면 바로미터가 될 두 모델이다. 화려하기로 치면 미니겠지만, 2012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골프 카브리올레와 대결하면 좀 다르다. 믿음직한 성능에 살짝 덧붙인 메이크업으로 매력을 발산하니 말이다.

추천! 해치백의 모범답안인 자동차이니 성능은 말할 나위 없다.

글썸? 막상 고르려면 망설이게 하는 가격과 주요 스펙이 미정이라는 점은 고민된다.





공유와 共鳴 공명하다

페로몬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그의 미소, 목소리, 말투에서 나오는
온화하고 긍정적인 기운이 주변을 들쭉이게
만든다. 공유의 매력이고 공명의 힘이다.
에디터 이민정 포토그래퍼 최용빈, 이훈

“뭔가
문제가 있는
캐릭터에 도전해
보고 싶다.”





• 이제 2012년 새해를 맞는다. 지난 2011년은 어떤 한 해였나?

‘더할 나위 없이 보람차고 기쁜 한 해’란 표현이 진부하지만 적확하다. 데뷔 10년차인 해에 <도가니>란 작품으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30대 남자 배우로서 꼭 듣고 싶었던 호평도 많이 들었다. 막연하게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작품이 현실화되었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좋은 결과를 이뤘기 때문에 성취감이 더 큰 것 같다.

•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다.

아직 정해진 건 없다. 팬들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좀더 자주 볼 수 있는 TV드라마 출연을 고려해보라고 하는데, 나 자신도 제대하면서부터 계속 고민해온 내용이다. 2012년에는 ‘아마도’ 좋은 드라마로 인사드릴 듯하다.

• 특별히 욕심나는 캐릭터는?

<도가니>를 제외하곤 항상 밝고 건강한 캐릭터를 주로 맡은 편이다. 약간 병든 캐릭터?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뭔가 정상이 아닌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류의 캐릭터에 도전해보고 싶다. 느와르 장르도 한번쯤 해보고 싶고.

• 남자 냄새 나는 역할에 대한 로망인가?

소위 대놓고 ‘나 멋지지’, ‘나 남자다’ 몸으로 부르짖는 역할에 대한 로망은 없다. 이미 남자 냄새는 물론 나지 않나?(웃음) 전작 중에서도 멋있는 척 품 잡는 역할은 솔직히 부담스럽고 오글거렸다. 마초적인 매력만 부각시키는 캐릭터는 재미없을 거 같고, 좀더 장르적인 냄새가 나는 작품의 역할이라면 욕심이 난다. 지금보다 어렸을 땐 단순히 캐릭터 위주로 작품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작품 전체를 보게 된다. 캐릭터는 그다음 문제인 것 같다.

• 전작 중 실제 자신과 가장 근접한 캐릭터가 있다면?

연기를 할 때 내 일부분을 그 캐릭터에 맞춰 최대한 드러나게끔 하는 편이다. <커피 프린스>의 최한결과 <도가니>의 강인호를 적절하게 버무리면 실제 내 모습과 가장 근사치가 아닐까.

• 자신을 수식하는 말 중 어떤 진짜 내 이미지가 아니다 싶은 표현은?

꽃미남(웃음) 이런 타이틀은 정~말 부담스럽다. 나 같은 스타일이 꽃미남이라니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데뷔 때부터 나를 그 부류라 생각해본 적 없고, 객관적으로 봐도 절대 아닌 거 같다. 언론매체에서 과장된 표현으로 포장을 많이 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얘기지만 매번 부담스럽다.

• 자신의 어떤 매력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거 같나?

친근함 내지는 솔직한 아닐까. 웬지 옆집 오빠 같고, 웃긴 형 같고, 장난기 많은 동생 같은 면. 직업은 화려해 보이는데 다가가기 쉬운 사람. 그런 자연스러움, 편안함을 매력으로 봐주시는 것 같다.

• 요즘 어리고 예쁜 여자 연예인(이연희, 크리스탈 등)들이 공유를 이상형으로 꼽으며 ‘스타일이 좋다’고들 한다. 부러워 죽을 남성들에게 스타일에 대해 조언해준다면?

공식석상에서 그분들을 만나면 꼭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야겠다.(웃음) 내가 스타일이 훌륭한 편이 아니라 조연까지 할 입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트렌드든 뭐든 본인한테 어울려야 한다는 거다. 나 역시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 유행 타지 않는 옷을 선호하는 편이고, TV에서 잘나가는 스타가 입고 나왔다고, 유행이라고 무작정 따라하는 게 독이 된다. 청바지에 티셔츠 한 장을 입더라도 본인한테 어울리는 핏이나 색을 잘 파악한다면 자신만의 스타일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 쇼핑 스타일은 어떤가?

간절기 때 왕창 몰아서 사는 편이다. 스타일리스트랑 2-3시간 돌아다니는 것 같다. 일본에 스케줄 있을 때 가서 많이 구입해 오기도 하고. 험찬 받아 입은 옷 중에 맘에 드는 것이 있으면 스타일리스트를 통해 그때그때 사 입는다. 평소 원도 쇼핑도 즐기고.

• 스케줄 없는 날에는 뭐 하나?

이 나이에 말하기 좀 창피하지만, 축구 게임을 정말 좋아한다. 촬영 스케줄로 외국에 나갈 때도 게임기를 꼭 챙겨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게임을 한다. 덩치에 안 맞지만 최한결처럼 혼자 레고를 갖고 놀 때도 있고, 또 애완동물과 놀면서 가끔 대화도... 말하다 보니 슬퍼진다.(웃음) 운동을 좋아해서 규칙적으로 웨이트도 즐기고, 지금은 추워서 못하지만 날씨가 좋으면 한강에서 자전거도 자주 탄다. 음악은 항상 많이 듣고 좋은 영화가 개봉하면 보러 가기도 한다. 최근에 하비에르 바르뎀 주연의 <비우티플>을 봤다.

• <도가니> 이후 공유의 독서 리스트가 궁금해졌다.

요즘 <오늘의 네코무라 씨>라고 고양이가 등장하는 만화책을 보고 있다. <도가니>에서 상대 배우였던 정유미 씨한테 촬영 끝나고 선물 받은 거다. 만화책을 즐겨 읽는 편은 아닌데 이 시리즈는 꽤 재미있더라. 여행 갈 때나 장시간 이동할 때는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을 챙긴다. 한 번 읽었는데 생각을 버리는 데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틈날 때마다 마구잡이로 펼쳐서 읽곤 한다.

• 일 때문에 가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여행 갈 적이 있었나?

제대하고 일본에 다녀왔다. 시커먼 남자 여럿이서 놀러 갔는데 어쩌나 재미있던지, 물론 제대 직후라 어디를 가도 재미있었던 것만(웃음) 시간 나면 그 멤버들이랑 또 가고 싶다. 좀더 긴 여유가 허락된다면 뉴욕에서 한 달쯤, 아니 그 이상 머물러보고 싶다. 뉴욕은 굉장한 도시다. 안 가본 곳 중에는 런던이나 파리 같은 도시. 새해엔 부디 여행 갈 시간이 나길 바란다.

• 다른 새해 소원도 말해달라.

건강이 최우선이다. 나를 포함해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모두 건강하고, 새해에는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득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소원이다. 또 어떤 작품으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힘껏 열정을 쏟아 여러분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다.

• 최종적인 꿈은?

최종적이라... 좀 부담되긴 하는데, 잘 늙고 싶다. 내가 언제까지 배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배우, 좋은 남자 사람으로 아주 멋지고 훌륭하게 늙어가고 싶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울림이 좋아지는 배우, 세월이 지날수록 농익은 소리로 감동을 주는 기타처럼 내 울림에 많은 사람들이 공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미
남자 냄새
물씬 나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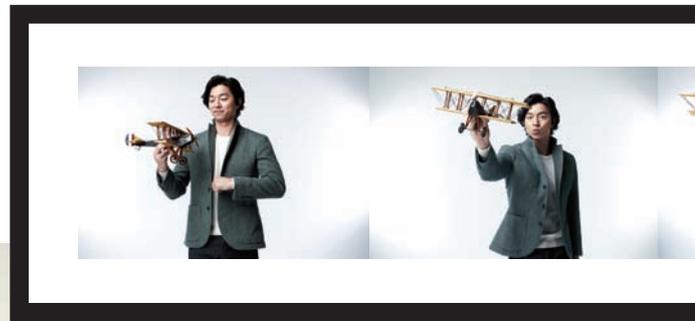




여행과 외식에 관련된
에디터의 질문에
조곤조곤 대답하는
공유, 촬영 동영상은
티몬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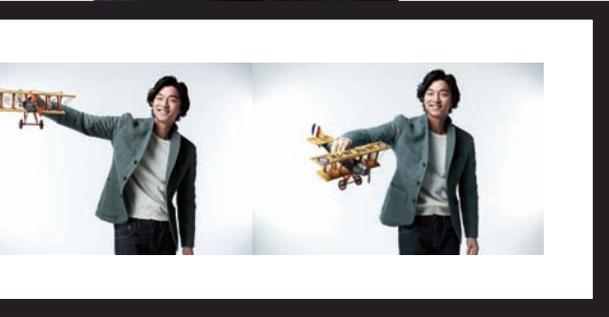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사치는 여행이다.
책에서 본 구절인데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저도 사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유일하게 여행이라면 괜찮다 싶거든요.
정신이 풍요로워지는 사치잖아요.”





Gong Yoo

쉬는 시간 아이패드로
티몬 사이트에 접속, 매의
눈으로 구석구석 살펴보며
"오~ 오~" 탄성 연발



◀ 음원차 촬영장을 방문한
신현성 대표와 한 컷.
▼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껏 반한 표정
지어주세요~"란 요구에
슬슬 발동거는 중.



감동이라고 불려도 좋을 신비로운 해돋이

북한산

서울의 명산으로 꼽히는 북한산의 일출은 신비로운 운해 위를 붉게 물들이는 풍경이 압권. 대동문과 동장대 사이에 위치한 시간봉에서 매년 1월 1일에 일출 행사가 펼쳐지니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열고 싶다면 참가해보자. 아카데미하우스, 백련사, 우이동 등에서 대동문 방향에서 출발해 40분에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된다.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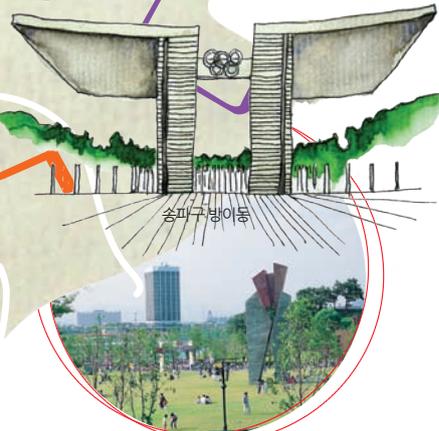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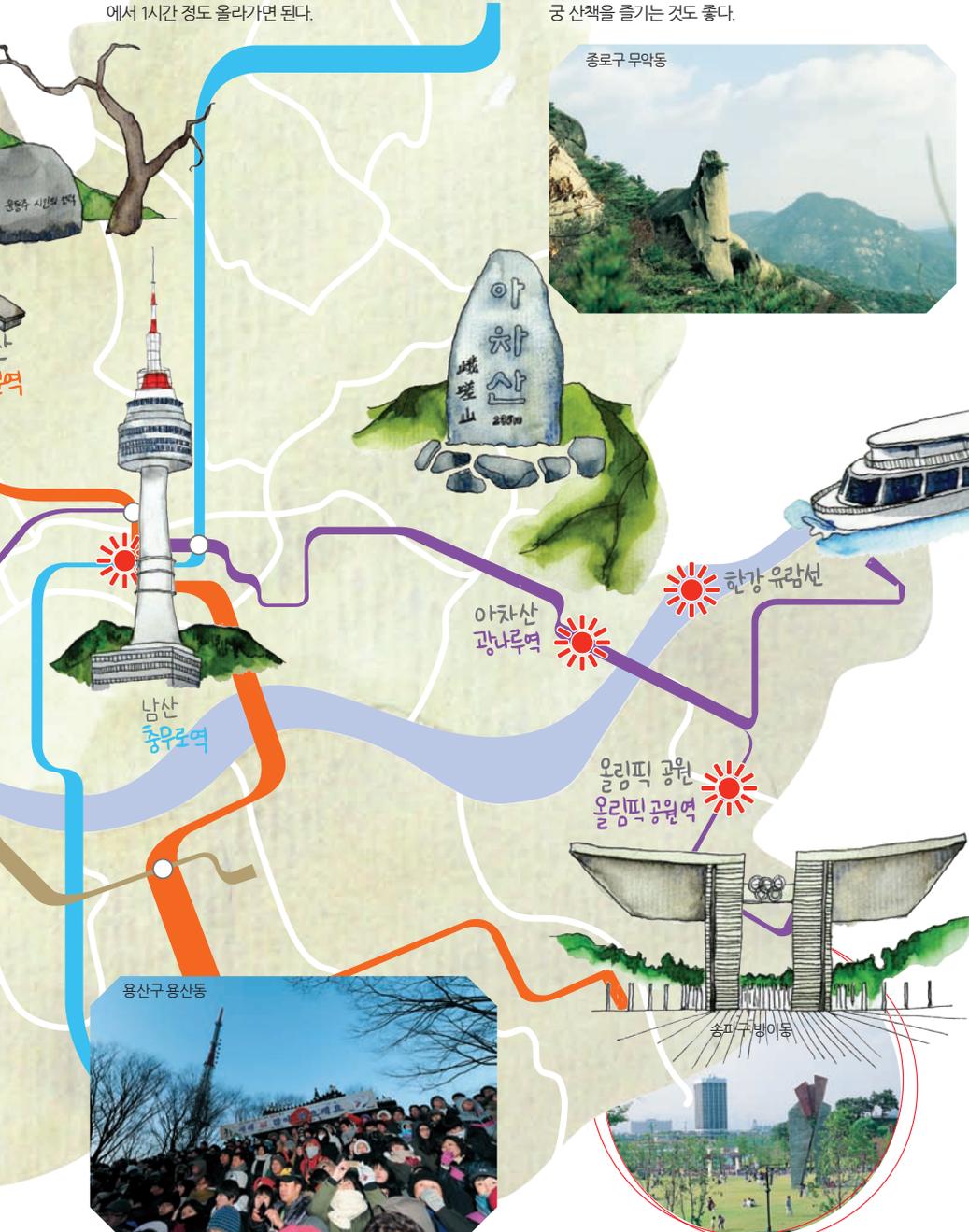
인왕산

강북권의 복잡한 빌딩 숲을 붉게 물들이며 천천히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곳. 꼭 정상에 오르지 않더라도 산책로 곳곳이 일출 포인트다. 인왕산성길 자락에 자리한 청운공원에서 매년 새해 첫날 신년 해맞이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일출을 본 뒤 사직동이나 효자동에 들러 뜨끈한 떡국 한 그릇 먹고 경북궁 산책을 즐기는 것도 좋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아차산

광진구와 구리시의 경계에 위치한 아차산은 높이 287m의 야트막한 산이지만 서울의 동쪽 끝에 자리한 터라 서울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에서 40분 정도면 정상에 다다를 만큼 쉽게 오를 수 있어 평소에도 해돋이를 구경하러 찾는 이들이 많다. 1월 1일 아침 7시부터 해맞이광장에서 아차산 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서울의 중심에서 새해 소망을 빌다

남산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인 만큼 새해 일출 명소로 인기가 높다. 남산팔각정 앞 광장에서는 매년 1월 1일에 해돋이 행사가 열리는데, 아침 6시부터 운행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 손쉽게 갈 수 있다. 연인끼리 왔다면 N타워 루프데라스에 '사랑의 자물쇠'를 걸며 올 한 해도 변치 않을 사랑을 맹세해보자.

공원에서 일출을 본다

올림픽공원

탁 트인 공원에서 빌딩 사이로 감상하는 해돋이는 의외로 색다른 맛이다. 무엇보다 힘들게 산을 오르지 않아서 좋고, 매서운 산바람과 싸울 일도 없으니 가벼운 차림으로 다녀오기 좋다.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 망월봉에서는 매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갖는다. 일출 구경과 함께 풍물단 공연, 새해소원 적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열리니 알아두자.

배 위에서 맞이하는 특별한 해돋이

한강 해맞이 유람선

조금 색다른 일출을 보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 매년 1월 1일에 운행하는 한강 '해맞이 유람선'을 타면 배 위에서 새해를 맞을 수 있다. 5호선 여의나루역과 연결되는 여의도 선착장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해 한강대교, 동작대교를 지나 청계산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감상한 뒤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는 코스다. 탑승할 때 떡과 식혜 등 간단한 아침식사도 제공한다.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해야 하니 참고할 것.

일출 나들이 머스트 해브 아이템 5



- 1 **두꺼운 옷차림**. 한겨울의 새벽 공기는 경악스러울 만큼 차갑다. 새해 첫날부터 감기로 고생하기 싫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이 필수다.
- 2 **손전등**. 겨울밤은 햇빛이 직전엔 가장 어둡다. 발길을 밝혀주는 작은 손전등을 꼭 챙기자.
- 3 **뜨거운 차**. 일출을 기다리는 동안 공공연 몸을 녹여줄 뜨거운 물이나 차를 보온병에 담아가는 건 기본!
- 4 **디카**.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일출 장면을 찍어두면 그날의 감동을 언제든 마음껏 되새겨볼 수 있다.
- 5 **아이젠**. 산행을 할 경우 반드시 준비하자. 눈 때문에 산길이 미끄러울 수 있다.

먼 길 떠나는 수고가 조금도 아깝지 않다!

전국의 숨은 일출 포인트 6

그래도 해돋이는 산이나 바다에서 보는 것이 진리라고 외치는 당신을 위해, 좀 덜 번비고 차로 접근하기 좋으면서 최고의 일출을 만날 수 있는 명소를 소개한다. 웬만하면 정동진, 호미곶은 피하자. 잘못하면 주차장이 된 고속도로 차 안에서 새해를 맞는 황당한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다!



강원 정선군 괴안읍

일출도 소핑처럼 쉽고 빠르게~

강원 함백산

태백산과 정선군에 걸쳐 있는 함백산은 겨울 일출이 특히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산자락 위로 붉게 솟아오르는 해와 능선을 뒤덮는 운해, 새하얀 눈꽃이 어우러진 절경은 신비롭다는 말 이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함백산은 해발 1573m로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산이지만 차로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도로가 나 있어 편리하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일출 여행에 제격!



일출·일몰 시간
여기서 검색한다

www.kasi.re.kr
www.w365.com

충남 태안군 괴안면 괴안리

서해안에서 일출을 본다구요?

안면도 영목항

서해안은 낙조가 아름답기로 소문났지만 멋진 일출을 볼 수 있는 포인트도 곳곳에 있다. 그중에서도 안면도 최남단에 위치한 영목항은 해넘이와 해돋이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다. 일출을 구경한 뒤 영목항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을 타고 안면도 주변의 아름다운 섬들을 둘러본 다음 항구에 즐비한 횡집에서 상식한 회를 맛보는 코스를 추천한다.

곤돌라 타고 만나는 해돋이

전북 덕유산

덕유산은 눈이 많이 내려 한겨울이면 은빛 세상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무주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곤돌라를 이용하면 쉽게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새해 첫날 아침 6시부터 운행하는 곤돌라를 타고 덕유산 설천봉에 도착해 나무 계단을 따라서 다시 20분쯤 올라가면 향적봉 정상에 올라오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설천봉-향적봉 구간의 환상적인 눈꽃터널은 덤이다.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문리



전남 여수시 돌산읍

수평선을 가득 채우는 붉은빛의 향연

여수 무술목

직선으로 펼쳐진 약 700m의 해안선에 주먹만 한 몽돌과 고운 모래가 깔려 있는 무술목해수욕장은 시시각각 변하는 환상적인 색감을 선사하는 해돋이로 유명하다. 특히 좀처럼 보기 힘든 오메가 일출(해의 아랫부분이 수평선과 맞닿아 있는 모양)도 자주 목격되어 아마추어 사진작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는 일출 포인트 중 하나다.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해돋이로 눈이, 대게로 입이 즐겁다

울진 죽변항

언제 봐도 멋진 동해안의 일출. 그중에서도 항구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아지각기한 볼거리가 더해져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울진의 죽변항은 등대 옆으로 솟아오르는 불덩이 같은 새빨간 해돋이로 유명한데,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히 항구를 드나드는 고깃배와 항구 바닥에 대게를 깔아놓고 경매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항구 주변 식당에서 대게 요리도 꼭 먹어보자.

선택반은 자에게만 하락되는 최고의 일출

울릉도 저동항

한국에서 독도 다음으로 해가 빨리 뜨는 울릉도는 섬 전체가 일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내수전의 일출전망대와 도동항 등이 유명하지만, 훗대바위 위로 붉은 해가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저동항이 으뜸으로 꼽힌다. 울릉도는 날씨 변화가 심해 1년 중 3~4개월 정도만 '짹'하고 해가 뜬다고 하니, 사진처럼 멋진 일출을 목격했다면 2012년엔 '대박'을 꿈꿔봐도 좋을 듯!



황금 울릉도리



핫초콜릿 카페

겨울 바람에 지친 내 몸을 충전해줄

첨가물 잔뜩 든 인스턴트 코코아는 사실!
진하다 못해 찝득한 초콜릿이 실크처럼, 벨벳처럼
부드럽게 혀를 휘감고 목을 타고 넘어가 온몸에
새로운 기운을 선사하는 진정한 '핫초콜릿'이 진리다.
칼바람이 뺨을 에는 듯한 한겨울, 이곳에서 달달하고
따끈한 핫초콜릿으로 움츠러든 내 몸을 충전하자.

에디터 이재연 포토그래퍼 문선영



위치 (경희궁점)
중구 필운동 289
문의 02-722-3245



초콜릿으로 된 보석상
레데라 초코라티에 스위스

Hot Chocolate

원형으로 펼쳐진 진열장 안의 초콜릿들이 어찌나
예쁜지 마치 보석상에 들어온 듯한 인상을 주는 곳. 경
희궁 부근에 자리한 '레데라 초코라티에'는 스위스에서
직수입한 수제 초콜릿을 판매한다. 이곳에선 에콰도르,
마다가스카르, 코스타리카 등 카카오 원산지에 따라 진
한 맛의 정도가 다른 핫초콜릿을 만날 수 있으며, 차가
운 초콜릿 음료로는 한 모금만 들이켜도 입안 가득 라
즈베리 향이 퍼지는 '라즈베리 다크'가 인기다. 이 밖에 모
카커피, 녹차, 베일리스 등이 초콜릿과 환상의 궁합을 이
룬 블렌딩 초콜릿 음료도 다양하게 있다. 정교하게 빚어
진 자태를 뽐내는 '프랄린'과 '트뤼플' 종류는 한 알에
2500원부터이며, 현젤과 그레텔이 집을 지어도 될 두툼
한 판 형태의 '프레시 초콜릿'은 100g에 1만원이다. 서울
파이낸스센터 지하에도 지점이 있지만 경희궁점이 더 조
용하고 아늑하다.



위치 서대문구 대학동 60-7
문의 02-313-3538



초코라테에 찍어 먹는 스페인의 추억
산추로

바르셀로나에서 초코라테에 추러스를 찍어 먹던 그 맛을 잊을 수 없다면 '산추로'에 들러보자. 스페인식 초콜릿 카페를 지향하는 이곳은 즉석에서 튀긴 추러스를 초콜릿소스와 함께 내놓는데, 이 악마적인 열량이 선사하는 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핫초콜릿 음료는 모두 스페인산 초콜릿으로 만든다. 혹시 얼큰한 걸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함께라면 '아즈테카'에 도전해볼 것. 칠리 파우더와 계피의 알싸하고 매운맛이 초콜릿의 느끼한 맛을 확 잡아주며 허공에 특별한 풍미를 남긴다. 여기에 추러스를 찍어 먹어도 아주 별미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 고민이라면 추러스, 브라우니, 아이스크림, 초콜릿을 입힌 프레첼, 트뤼플을 한 그릇 가득 담아주는 '초콜릿 타파스'를 추천한다. 강통에 든 핫초콜릿용 초콜릿을 사서 제조법을 배워 가면 집에서도 같은 맛을 즐길 수 있다고.

Hot Chocolate



위치 마포구 서교동 337-16
문의 02-3141-4663



천사와 악마, 초콜릿의 두 얼굴
카카오봄



카페라테처럼 부드러운 핫초콜릿을 원한다면 '천사 같은 핫초콜릿', 씹싸롭고 묵직한 맛이 좋다면 음료라기보다는 소스에 가까운 '악마 같은 핫초콜릿', 공공 언 몸을 노곤하게 녹이고 싶다면 브랜드를 넣은 '휴식 같은 핫초콜릿'을 선택하자. 마셔보니 좀더 진한 게 좋겠다 싶으면 함께 나오는 잎사귀 모양의 초콜릿 조각을 넣어 녹여 먹으면 된다. 이 밖에 설탕에 절여 젤리처럼 만든 오렌지 껍질에 초콜릿을 씌운 디저트 '오랑제트', 브라우니보다 한 수 위의 초콜릿 함량을 자랑하는 '리치스퀘어'가 나도 모르게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만든다. 네덜란드어로 카카오나무를 뜻한다는 '카카오봄'에서 파는 수제 초콜릿은 모두 벨기에의 엔트베르펜 피바 호텔에서 1년간 초콜릿 과정을 이수한 고영주 쇼콜라티에의 작품. 카운터 뒤 작업실에서는 초콜릿 만들기 수업도 진행한다.



풍듀로 1차, 쇼콜라쇼로 2차
멜로우



아기자기한 고양이 인형과 찰스 임스, 아르네 야콥슨 등의 디자이너 체어가 놓인 이 분위기 좋은 카페에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멜코 클래식 세트(6500원)'를 주문해야 한다. 주문 제작한 미니 사이즈 풍듀 그릇에 초콜릿칩을 녹여 바나나와 크루아상을 풍당풍당 찍어 먹고, 남은 초콜릿에 따끈하게 데운 우유를 부어 핫초콜릿을 만들어 마시면 멜코 코스가 완성된다. 멜코 세트는 여타 초콜릿 카페의 풍듀에 비해 가격 부담이 없는 것도 강점이다. 프랑스로 핫초콜릿을 뜻하는 이곳의 쇼콜라쇼에는 캐러멜 및 이썬인 게 특징. 스타프케이크, 푸딩 등 디저트 메뉴는 모두 주인장이 직접 만든 것들이다. 늘 카페 문 앞에 고양이 밥을 놓아두고 길고양이들의 배를 채워주는 주인장의 마음씨도 이 집의 쇼콜라쇼만큼이나 따뜻하다.



위치 마포구 서교동 368-7
문의 010-8949-7495



위치 (이태원점)
용산구 한남동 736-21
문의 02-792-0060

Hot Chocolate



나에게 맞는 도수는?
주빌리 쇼콜라티에

33%에서 75%를 거쳐 85%까지. 애주가에게는 고량주의 도수로 보일 이 숫자는 '주빌리 쇼콜라티에'에서 판매하는 핫초콜릿의 초콜릿 함량이다. 초보라면 초콜릿보다는 우유가 더 많이 들어가 달콤하고 부드러운 33%의 '퓨어가 좋을 테고, 커피도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쓴맛 애호가라면 85%의 '비타'가 제격일 듯. 이 둘 사이엔 인기 폭발의 75% '클래식'이 있다. 이곳의 또 다른 강점은 다양한 향차의 향을 더한 블렌딩 초콜릿 음료로 이 중 '발렌타인'은 마치 입안에 꽃을 물고 초콜릿을 마시는 듯한 향이 아주 매력적이다. 두꺼운 다크 초콜릿이 조각푼처럼 케이크를 감싸고 있는 '쇼콜라 클래식', 블루베리를 가득 올린 타르트, 업그레이드된 초콜릿바인 '루즈바'도 모두 주빌리의 자랑거리다. 이태원점 외에 여의도, 종각, 삼청동, 대학로, 문산, 안산에도 매장이 있다.



아이언 셰프

경자동 카페거리에서 맛집으로 꽤 소문난 곳. 퓨전 철판요리를 지향하는 '아이언 셰프'는 아담한 일본 선술집 분위기다. 손님들이 즐겨 찾는 '새우구이야채볶음'은 탱글탱글한 새우에 아삭한 채소가 조화로워 맥주에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두툽한 육질의 '안심스테이크꼬치구이'도 손님들이 자주 찾는 메뉴. 특히 아이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퓨전 철판볶음밥 메뉴가 다양해서 가족 단위 손님이 많다.

1 / 안심스테이크꼬치구이
2만6000원
2 / 새우구이야채볶음
1만7000원



이
그
를
이
그
를
후
후
근
한

철판요리전

위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자동 13-1 02-336-5578 155-9910317263391

위키 마포구 서교동 409-1 1층 문의 02-336-5578, www.tppenkorea.com



테판

1 / 새우브로콜리의
마요소스구이 1만1800원
2 / 텃펜야기 1만2800원



홍대 앞에 작은 일본이 있다. '테판'은 일본 특유의 큰 소리 인사와 젊은 분위기가 철판에서 퐁퐁 튀는 새우처럼 활기차다. '히로시마식 텃펜야기'는 단골손님들이 자주 찾는 대표 메뉴로 위장을 요동치게 하는 비주얼과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하고 달콤한 소스 향이 특징이다. 각종 채소와 면, 치즈까지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젊음을 느끼며 일본 정통 철판요리를 맛보고 싶을 때는 테판이 제격이다.



9242 철판요리

철판요리는 비싸다? 9242 철판요리는 저렴하고 정직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고소한 특제 소스에 찍어 먹는 '철판 비프스테이크'가 이곳의 대표 메뉴. 육질이 부드러운 소고기와 신선한 채소가 어우러진 맛이 일품이다. 소고기와 채소를 잘게 썰어 볶음밥으로 마무리해야 9242 철판 코스 완성! 저렴하면서도 알찬 철판요리를 찾는 이들에게 강추한다.

철판 비프스테이크
9900원



임진년 용의 해가 밝았다. 자그로 새해에는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각오를 다진다. 여기 새해의 태양처럼 이글이글 후끈한 철판요리가 있다. 철판의 뜨거운 기운을 받아 한 해를 화끈하게 시작하자! 에디터 박재훈 포토그래퍼 김영환

위치 강동구 성내동 378-5 문의 031-261-8192 www.9242.com



애나스페셜코스 1인 5만원
해물스페셜코스 1인 6만원
세프스페셜코스 1인 8만8000원

애나의 정원

박찬호, 신은경 등의 입맛을 사로잡은 류동현 셰프의 화려한 손기술을 만날 수 있는 곳. 셰프의 손에서 신선한 재료들이 춤추며 입맛을 자극한다. 자연산 송이를 비롯한 각종 채소와 양새우, 전복, 랍스타에서 스테이크까지 후끈한 철판 위에서 춤을 춘다. 요리 하나하나 셰프의 설명을 들으며 4가지 소스에 재료별로 찍어 먹는 환상 궁합 맛과 더불어 현란한 '볼 쇼'는 입은 물론 눈과 귀까지 즐겁게 한다. '애나의 정원'은 가족, 연인들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평일에도 예약이 끊이지 않는다.





농어스테이크 2만2000원

산 넘어 산, 예비 신부의 SOS입니다~

1월에 날 잡은 예비 신부입니다. 지금 한창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의욕이 안 생겨요. 예비 신랑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만사가 귀찮네요. 요즘 회사 일도 너무 바빠서 피부 관리 받으러 갈 시간도 없고 말이죠. 이 마당에 시골에서 친척들이 올라오세요. 결혼식 전에 신랑 얼굴 한 번 보신다고요. 어디서 대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Solution

사연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귀차니즘과 짜증스러움이 아주 담백 묻어나네요. 이리다 본인의 마음 상태에 대한 자책까지 곁들면 제대로 우울해지죠.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일단 닥터 티몬이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후딱 해치웁시다. 이태원 해밀톤호텔 아시죠? 거기 본관 1층에 '그릴'이라는 레스토랑이 새로 오픈했습니다. 런치 메뉴로는 그릴 스페셜 뷔페, 양고기스테이크, 블루베리리뉴스테이크, 농어스테이크&크림리조또가 있고, 디너에는 양고기햄버거, 햄버거스테이크, 떡갈비 등도 맛볼 수 있죠. 티몬이 추천하는 메뉴는 '농어스테이크'입니다. 크림리조또 위에 먹기 좋게 구운 농어스테이크를 올리는데 맛이 아주 담백하고 고소해서 여성들이나 어르신들께 인기가 좋은 메뉴입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직원들도 친절하니 귀한 손님 모시기에 이보다 더 괜찮은 곳이 없을 겁니다. 신부님, 파이팅~!



1 양고기스테이크 2만8000원
2 수제 양고기버거 1만7600원

Grill

위치 용산구 이태원동 119-25
해밀톤호텔 1층
문의 02-6393-1227



2012년에도 잘 먹겠습니다!

닥터 티몬은 나이 먹는 게 두렵습니다.
몸이 정말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균것질을 자제하고 한 끼를 먹어도 고품격 웰빙
식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2012년 건강하게 달려보자고요~! 에디터 이민정



누나 VS 스테이크

막내 남동생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나이차가 많이 나는 동생이라 너무 오나오나했더니 할 줄 아는 건 취쁨도 없고 어리광만 피워서 집안의 큰 걱정거리였는데, 이렇게 고마울 수가!! 합격 기념으로 이 녀석이 제 누나보다 사랑하는 스테이크를 실컷 먹게 해주려고요~. 육질 좋고 양 푸짐한 곳 없을까요?

Solution

축하드립니다!! 누님이 큰 시름 달렸군요. 하지만 아시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 취업도 장난 아니고 결혼도... 하하~! 각설하고 먹성 좋은 남동생과 대학 합격의 기쁨을 만끽할 만한 스테이크 전문점이라면 방배동에 있는 '프리바다다이닝'을 강력 추천합니다. 최상급 정통 스테이크는 물론 홈메이드 샐러드바에 파스타, 피자까지 즐길 수 있는 다이닝입니다. 이 집의 자랑인 '와규 립아이스테이크'와 '한우1++안심스테이크'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맛이니 하나씩 주문해 사이좋게 나눠 드시면 되겠습니다. 3만4800원짜리 '프리바다 스테이크 코스'를 주문하면 뉴욕스트립, 프리바다 스테이크가 '무한 리필'됩니다. 이곳에 다녀오면 아마 동생이 누나를 더 사랑하고 아껴줘야 본인한테 돌아오는 게 많다는 걸 제대로 깨달을 겁니다. 남매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Giani's Napoli

위치 강남구 청담동 85-14
문의 02-549-0802



- 1 / 봉골레파스타 1만4500원
- 2 / 마르게리따피자 1만6500원
- 3 / 고르곤졸라피자 1만4500원

피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취업 때문에 서울 올라온 지 일주일 된 신림동 L입니다. 신림역에서 <티몬매거진>을 봤는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맛있는 음식들이 좌르르~!! 여태 못 먹어본 음식들이 천지뵈까리더만요. 다음 주에 동생도 올라오는데 같이 서울 생활을 자축할 만한 메뉴 좀 추천해주세요!

Solution

웬걸입니다~! 딱딱한 서울 생활을 동생과 함께하게 돼서 천만다행이고요. 혼자면 밥도 혼자 먹고, TV에 웃긴 거 나와도 공감할 사람 없고, 아프더라도 하면...ㅠㅠ 동생과 으쌰으쌰 힘내자고 피자 한 판 여떨까요? 국내 유일의 정통 나폴리 피자를 맛볼 수 있는 '지아니스 나폴리'를 소개해드릴게요. 피자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화덕에서 구운 피자라 도우의 쫄깃함이 정말 감동이거든요. 이 집에서 추천하고 싶은 메뉴는 '파트로 포르미지'입니다. 이 피자는 고르곤졸라 치즈, 레지아노치즈, 모차렐라치즈, 키리크림치즈로 만든 치즈에 의한, 치즈를 위한 한 판입니다. 진한 치즈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보다 환상적인 피자는 없을 거예요. 샐러드, 파스타도 맛있으니 동생과 함께 배불리 먹어보아요~! 서울 생활 힘들면 저한테 꼭 연락주시고요!



- 1 / 와규립아이 2만9800원
- 2 / 도미스테이크 1만6800원
- 3 / 립아이스테이크 1만8000원



프리바다다이닝

위치 서초구 방배동 445-46층
문의 02-525-0911, www.privada.kr



〈그녀가 죽길, 바다〉 정수현 지음

〈압구정 다이어리〉, 〈셀러브리티〉 등 칙릿 소설로 20~30대 여성 독자들의 큰 공감대를 형성했던 정수현 작가의 여성 번째 작품은 의외로 로맨틱 미스터리다. 못생기고 뚱뚱한 외모에 간절히 원하는 뮤지컬 오디션에서 거듭 낙방하는 윤재희.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에 직업은 변호사지만 과거 불행했던 기억으로 복수를 계획하는 이민아. 어느 날 우연한 사고로 이민아의 몸에 윤재희의 영혼이 빙의되어 잠시 동안 육체를 공유하게 되면서 소설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누구나 한 번쯤 '내가 000이라면~' 하는 상상을 한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걸모습 뒤에 어두운 과거가 숨겨져 있다면? 절대 가질 수 없었던 걸 자졌을 때 조금씩 드러나는 인간의 추악한 심리 변화도 흥미진진하다.



소담, 1만3000원

book



재미주의, 1만2000원

〈조명가게 1〉 강풀 지음

강풀이 이번에 선택한 소재는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경계'란 삶과 죽음의 경계로 보통은 그곳을 넘어간 이들을 귀신, 유령, 좀비 등으로 부르지만, 작가는 그들도 '사람'이라 부르며 그들 또한 그곳에서 '살아간다'고 본다. 죽은 자들 또한 우리와 같은 이웃으로 최책감, 책임감, 슬픔, 사랑과 같은 극히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 〈조명가게〉는 중반까지도 전체 이야기를 가능할 수 없을 만큼 경계에 있는 사람들 각각의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해결되며 '아!' 하는 탄성을 터뜨리게 하는 구조. 〈타이밍〉, 〈아파트〉, 〈이웃 사람〉과 같이 공포와 스릴러가 결합되었으나 이해하기 쉬웠던 전작들과는 달리 〈조명가게〉는 순수하고 밀도 높은 공포물이다. 이민정



〈기막힌 스캔들〉

기간 오픈런 장소 대학로 상명아트홀 1관 문의 02-764-8760

내 연애는 이리 복잡하고 심각하건만, 남의 연애는 왜 이리 웃긴 걸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속살 틈을 안 주는 다섯 남녀의 복잡한 연애 스캔들이라니 분명 심각한 이야기일 텐데, 연극 〈기막힌 스캔들〉은 정통 코미디를 표방한다. 역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해외 언론의 평은 이렇다. "허리가 부러지게 웃고 나서도 끝내 아리송한 연극. 이 연극은 최근의 경제 불황을 잊게 해주는 최상의 처방이다." 사랑에 지친 마음에 줄 관찰은 선물이지 않을까.



뮤지컬 판타지아

뮤지컬 코미디, 혹은 뮤지컬 플레이어의 악칭인 뮤지컬은 음악과 춤을 스토리에 맞게 긴밀하게 짜 맞춘 연극이다. 뮤지컬은 까다로운 공연 예절이나 드레스코드 없이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게 매력. 뮤지컬 전성시대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공연계답게 2012년 신년 뮤지컬 공연 소식도 풍성하다. 자, 화려한 뮤지컬 3종 세트 소개 나간다. 예매율이 높은 작품들이니 꽃히는 즉시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자. 장진아

〈페임〉

기간 1월 29일까지
장소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문의 1588-5212



예술학교에 입학한 꿈 많고 열정 넘치는 청춘들의 음악과 춤을 소재로 한 하이틴 뮤지컬이다. 한국 공연에 손호영, 은혁, 티파니, 린아, 정모 등 아이돌 스타를 기용, 뮤지컬 버전 〈드림하이〉를 보여주고 있다. 청춘의 풋풋한 감성을 충전하고픈 이들에게 추천한다.

〈엘리자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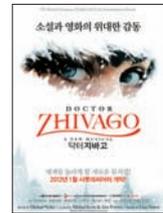
기간 2월 9일-5월 13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문의 02-6391-6333



오스트리아가 사랑한 황후 엘리자벳은 아름다운 외모와 드라마틱한 일대기로 많은 예술가의 뮤즈가 되어왔다. 뮤지컬 〈엘리자벳〉은 판타지적인 요소인 '죽음' 캐릭터를 통해 기발하고 독특하게 그녀의 삶을 재구성한다. 19세기 유럽의 디테일을 살린 무대미술이 압권이라는 평이다.

〈닥터 지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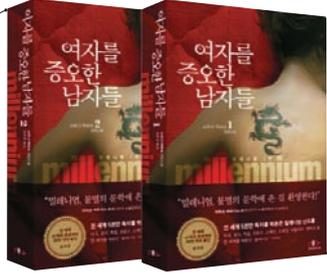
기간 1월 27일-6월 3일
장소 샤롯데씨어터
문의 1588-5212



영화와 소설로 이미 잘 알려진 〈닥터 지바고〉가 뮤지컬로 무대에 오른다. 러시아의 10월 혁명을 배경으로 한 반대편 이야기인 원작을 얼마나 매끄럽게 각색했는지가 성공의 열쇠일 듯. 주인공 '유리 지바고' 역에 주지훈이 캐스팅되어 복귀작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movie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The Girl with the Dragon Tattoo
감독 데이빗 핀처
출연 다니얼 크레이그, 루니 마라
개봉 1월 12일



밀레니엄 제1부: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Man som hatar kvinnor
감독 닐스 아르덴 오플레브
출연 노미 라파스, 미카엘 뉴키비스트
개봉 1월 5일

기나긴 겨울밤엔 심장이 얼어붙는 스릴러 영화를

크리스마스과 신년의 설렘도 지나고, 이제 춥고 길고 지루한 본격적인 겨울이 남았다. 그리고 이 겨울에 딱 어울릴, 음울한 스웨덴이 배경인 '본격' 스릴러 영화가 두 편 개봉한다. 그런데 두 작품 모두 스웨덴 작가 스티그 라르손의 베스트셀러 <밀레니엄> 3부작 중 1부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을 영화화한 것. 2009년작 스웨덴 영화 <밀레니엄 제1부: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이하 <밀레니엄>)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익을 올린 바 있다. 재벌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기사를 쓰다가 소송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게 된 기자 미카엘 블롱크비스트에게 스웨덴의 명문 방예르가의 수장 헨릭 방예르가 수사 의뢰를 해준다. 자신의 가족을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람들이라 일컫는 헨릭은 40년 전 일어난 손녀딸의 살해사건을 파헤쳐달라고 부탁하고, 미카엘은 온몸에 피어싱과 문신을 한 문제아이자 천재 해커 리스베트와 파트너가 되어 사악하고 끔찍한 명문가의 이면에 다가간다. 스웨덴 버전 개봉 일주일 뒤에 할리우드 버전 <밀레니엄>이 개봉한다. 같은 이야기를 영어로 다시 보는 것 아니냐고? 그럴 거면 관객의 지능을 시험하는 정교한 스릴러의 대가 데이빗 핀처가 나서지도 않았다. 원작을 비교적 충실하게 따른 스웨덴 버전과 달리, 핀처는 <머니볼>, <원들러 리스트>의 각본을 쓴 할리우드의 특급 작가 스티븐 자일리언과 만나 원작의 인물과 스토리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결말을 선사한다. 배우들의 빈틈없는 연기가 긴장의 강도를 더하는 두 버전 모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리스베트 역을 맡은 두 여배우다. 스웨덴 버전에서 리스베트 역으로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긴 노미 라파스는 이미 할리우드에 진출하여 <셜록홀مز: 그림자 게임>에 출연했다. 스칼렛 요한슨과 나탈리 포트만이라는 강적을 몰리치고 할리우드 버전의 리스베트 역을 맡은 루니 마라의 존재감 역시 블롱크비스트 역의 다니얼 크레이그를 압도할 정도라고. 상영 시간이 150분이 넘는 두 영화를 보고도 아직 겨울밤이 길다 싶으면 국내에도 번역 출간된 스티그 라르손의 베스트셀러 원작 소설을 읽어보자. **이재연**



보성차밭 빛 축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보성'이라는 지명을 듣는 순간 녹차밭, 그리고 진초록빛 차밭 풍경을 자연스레 떠올릴 것이다. 연둣빛 카펫을 깔아놓은 듯한, 보기만 해도 시원스러운 차밭이 매력적인 풍경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보성 녹차밭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알고 보면 보성 녹차밭은 1년 내내 다른 매력으로 여행자를 홀리는 '마성의' 여행지다. 갓난아기의 속살처럼 보드라운 새순이 돌아나는 봄, 싱그러움이 절정을 이루는 여름, 새하얀 차꽃이 탐스럽게 피어오르는 가을...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겨울의 녹차밭을 최고로 꼽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매해 겨울마다 열리는 '보성차밭 빛 축제'를 경험해본 이들이 특히 그렇다.

1만7000㎡에 이르는 차밭을 색색의 전구와 조명, 불빛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보성차밭 빛 축제'가 지난 12월 9일부터 열려 매일 밤 찾아오는 이들을 동심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낭만적인 은하수 터널과 조명으로 연출된 빛의 세계를 걷다 보면 어느새 푸른 녹차밭의 아름다움이 무색해질 정도다. 가장 큰 불거리는 높이 120m, 폭 130m의 대형 차밭 트리. 120만 개의 전구와 LED 조명으로 꾸민 트리는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다고 하니 한 번쯤 불만할 가치가 있다. 추위도 잊고 빛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보면 일찍 어두워지는 겨울밤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질 듯. 1월 29일까지 열린다.

프로방스 빛 축제

경기도 파주시에선 매력적인 불거리가 은근히 많이 숨어 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풍경과 매력을 고스란히 옮겨다놓은 듯한 프로방스 마을도 그중 하나다. 아기자기한 건물과 레스토랑, 술들이 자리한 유럽풍 테마 마을인 이곳에 최근 해만 지면 수상한 반전이 벌어진다. 건물과 주변 들판을 뒤덮은 400만 개의 LED 램프가 매일 밤마다 황홀한 빛의 축제를 발하는 것. 추운 겨울, 그것도 낮이 아닌 밤중에 파주로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꿈결같은 불빛의 유혹은 마을 초입에서부터 시작된다. 낮인지 밤인지 헷갈릴 정도로 불을 밝힌 색색의 꼬마전구에 순간 압도당하고, 놀라움은 금세 즐거움으로 변한다. 길이 180m의 빛 터널과 시계절을 빛으로 표현한 하트공원, 빛의 트리는 그저 예쁘다는 단어만으로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 사실 이 감동은 직접 가서 느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다. 축제의 테마가 '빛'으로 전하는 사랑 이야기인 만큼 주로 커플들이 많이 찾는다. 하지만 싱글이라도 주목을 필요 없다.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불빛에 빠져들다 보면 커플들이 시야에서 '자동 차단'되니까. 어느 곳이든 카메라 렌즈만 가져다 대면 '그림'이 나오니 디카 챙기는 건 잊지 말자. 물론 매서운 추위를 견딜 두꺼운 옷차림도 필수다. 4월 1일까지 계속되며, 입장료는 5000원이다. **백선영**

Travel





지그재그 형태의 밑창이 다리의 피로를 덜어주는 리복 '직액티브에이트 SE'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해 신발 속 습도와 온도를 낮춘 아디다스 '클라이마콜 라이드'



동양인의 발 모양에 맞게 개발하여 착용감을 높인 뉴발란스 '1080'



실내 트레이닝 활동에 적합하도록 디자인한 리복 '트레인톤'



발목 꺾임을 제어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스펙스 'R SMART 212'



뒤집어라, 앞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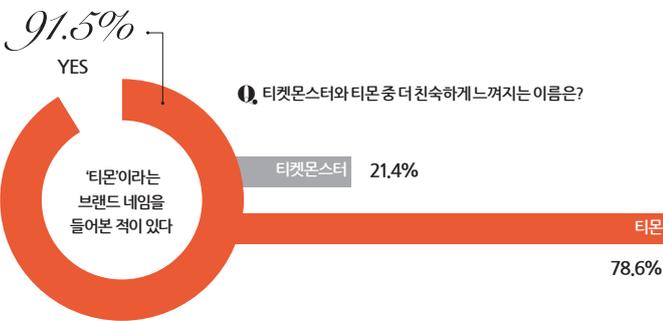
뒤태가 예뻐야 진짜 미인이라 하지 않았나. 워든지 진짜는 뒤집어봐야 아는 법이다. 에디터 장진아 포토그래퍼 박인광

러닝화 밑창이 나날이 화려해지고 있다. 색상은 물론이고 모양도 여러 겹을 겹쳐놓은 듯한 모양부터 지그재그식 신발 밑창까지 생겼다. 누가 내 신발 바닥을 보겠느냐고 되묻지 마라. 여자들의 로망이라는 루브탱 구두의 성공 비결도 새빨간 밑창이 아니던가? 뛰거나 걸을 때 발과 무릎이 받을 충격을 줄이고 힘 있는 걸음걸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능을 한다... 각종 보도 자료는 소개하지만,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얼마나 세련된 패션을 완성해주느냐 여부다. 발목에서 딱 끊기는 바지 경장이나 워시가 없는 데님에 날렵하고 가벼운 러닝화를 매치해보자. 걸을 때만 살짝 드러나는 형광 하늘색 밑창이 당신을 패션피플로 등극시킬 것이다.

제품촬영 | 이디디스 02-547-2771, 리복 02-3446-4058, 프로스펙스 02-799-7668, 뉴발란스 02-2028-6870

티켓몬스터, 이제는 TMON으로 불러주세요!

티켓몬스터가 BI(Brand Identity)와 서비스명을 '티몬(TMON)'으로 새롭게 변경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BI '티몬'은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상생의 장'이란 의미를 영문 'O'자로 표현했으며, 소셜 커머스 업계의 리더로서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동반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의 워드마크와 옐로우색으로 고객들에게 친근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전달하고자 했고, 보다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티켓몬스터는 이번 BI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서비스명 '티켓몬스터'와 '티몬'의 인지도 및 선호도를 알아보는 비공개 리서치를 진행했는데요. 설문 참여자 716명 중 91.5%가 '티몬'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들어본 적이 있으며, '티켓몬스터'(21.4%)보다 '티몬'(78.6%)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 공유, '티몬' 전속 모델로 발탁

티켓몬스터가 서비스명과 BI를 티몬(TMON)으로 변경, 본격적인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하며 전속 모델로 배우 공유를 선정했습니다. 공유가 모델로 등장한 이번 TV CF는 '호텔뷔페'와 '몰디브 여행' 두 가지 버전으로 촬영되었는데요. 두 CF 모두 예기치 않은 결말로 공유의 남성적이면서 귀여운 매력을 동시에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호텔뷔페' 편에서는 공유가 패셔너블한 옷차림에 남자다운 면서도 살짝 시간방진 모습으로 등장해 "너희 그렇게 살면 내 반도 못 따라와"라며 시크한 매력을 무한 발산하다가, 티몬 밑에서 호텔뷔페 50% 쿠폰을 보고 귀요미 표정으로 좋아하는 급반전 스토리로 여심을 뒤흔들고 있죠. 또 '몰디브 여행' 편에서는 매사에 열정적인 직장인으로 등장, 드림을 연주하며 "사는 게 무로해?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라는 멘트를 던진 후, 티몬에서 몰디브 반값 딜을 보여 즐거워하는 유쾌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티켓몬스터 브랜드마케팅 경영진 팀장은 "공유는 최근 영화 <도가니>에서 섬세한 감정 표현과 눈빛 연기를 선보여 다양한 연령층에서 폭넓은 인기와 신뢰를 받고 있는 배우"라며, "특히 티몬의 주요 소비자층인 2030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델로 수차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한 결과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티몬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이라 판단해 캐스팅하게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티몬, 크리스마스 기획전 '7Days Giving' 진행

티몬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크리스마스 기획전 '7Days Giving'을 진행하고, 수익금의 1%를 아름다운가게의 '소외아동 정서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기획전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줄 'X-MAS 록소캔들', '크리스마스 과자', '벨기에 초콜릿' 등은 물론, 사랑하는 연인, 친구 또는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기 좋은 '인빅타, 스위스레전드 시계', '코치 가방', 'ZIPPO 라이터', '명품 향수'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무엇보다 기존의 제품 가격에서 최고 60%까지 할인된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하여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행사와 선물 준비로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진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획전 '7Days Giving'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1%를 아름다운가게가 후원하는 '소외아동 정서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해 의미가 더욱 뜻깊은 선물이 되었을 것 같아요.



티몬, 연말연시 맞아 '프리미엄 브랜드 기획전' 열어

36% 구매중요

티몬의 프리미엄 브랜드 기획전은 고급 화장품과 명품 패션잡화, 우수 주방용품, 육아용품 등 각 카테고리별 인기 제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25~35세 여성의 위시리스트 상품들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며, 기존 소셜커머스에서 볼 수 없었던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12월부터 2개월간 티켓몬스터 홈페이지에서 매일 3~4개씩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최초로 진행되는 투미(TUMI), 잉글리시나 유모차, 퍼거슨힐 스피커 뿐만 아니라, SK-II 시그니처 크림, 맥 립스틱 등 유명 뷰티 상품 외에도 UGG 오리지널, 뱅앤올룹슨 A8 이어폰, 다이스 청소기 등 각 카테고리별로 실용적이면서 매력적인 상품들을 내년 1월까지 선보일 예정이니 이번 알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티몬스토어로 가져!



뱅앤올룹슨 A8

뱅앤올룹슨의 이어폰은 참 예쁘다. 알루미늄과 고무 소재의 오묘한 조화는 곡선 디자인에 스며들어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느낌을 준다. 이어폰의 사운드를 귓속까지 제대로 전달하는 디자인 덕분에 사운드 손실 없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소니사이버샷 DSC-WX30

멀리 있는 찍사랑 그이의 얼굴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 등장! 바로 '소니 사이버샷 DSC-WX30'이 그 주인공이다. '선명한 이미지 줌' 기능이 화질 저하 없이 광학 줌 수준의 디지털 줌을 구현해낸다. 작다고 놀리지 마시라. 이래 봐도 1620만 화소의 DSLR 버금가는 제품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우스

컴퓨터 주변기에 유난히 둔 쓰기 아까워하는 이들은 기본으로 주어지는 것만 쓴다. 문제는 손목이 아파다는 것.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우스는 편안한 그림감을 위한 인체공학적 설계에 블루트랙 테크놀로지로 인식을과 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명품 마우스다. 이런 제품과 함께라면 장시간 마우스질도 OK!



버팔로 유무선 와이파이 공유기

일본의 최대 네트워크 제조업체인 버팔로의 유무선 와이파이 공유기는 회전 가능한 고성능 안테나를 장착해 최적의 송수신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기존 제품과 달리 무선공유기끼리도 무선 통신을 사용할 수 있다. 인테리어 효과를 높여주는 깔끔한 디자인은 덤이다.

퍼거슨힐 스피커 FH007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건 뭐든지 신뢰감을 주게 마련. 명품 스피커 브랜드 퍼거슨힐의 미니 스피커 시스템은 투명 아크릴 소재에 미니멀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일단 시선을 사로잡는다. 무엇보다 브랜드 고유의 혼스피커로 걸출한 음향을 선사해주시니 고마울 따름! MP3플레이어, 컴퓨터, 하이파이 시스템 등 전천후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간다.



가격, 성능, 디자인 등 결제 직전까지도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전자제품.
티몬스토어에서라면 어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완전체를 만나볼 수 있다. 에디터 장진아



위니아 에어워셔

이름도 생소한 '에어워셔'는 가습기와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겸한 제품이다. 건조하고 오염된 실내 공기를 빨아들여 물로 씻어낸 후 깨끗한 공기를 자연 기화 방식으로 내보내는 원리. 물의 정화 능력을 이용해 자연 친화적으로 실내 공기를 관리해주시기 분도 한결 산뜻하다.

LG 블루투스 모노 헤드셋

간편한 통화와 자유로운 음악 감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LG 블루투스 모노 헤드셋'은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티타늄 소재에 각도 조절이 가능한 이어피스로 착용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폰 유저라면 주변기기를 적절히 활용할 줄도 알아야 하는 법!



스마트로이

안드로이드 OS와 LED TV가 만났으니 그 이름 하여 '스마트로이'다. PC에 연결하지 않고도 TV 시청과 인터넷 검색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21세기형 TV랄까? 나쁜 주말, TV 앞 소파에 꼼짝 안 하고 누워 휴식을 만끽하면 더없이 행복할 듯!



캐논 캠코더 HF R20

즐거은 순간을 사진으로만 남기기 아쉬울 때가 있다. 캐논 캠코더는 풀 HD 동영상 촬영과 광학 20배 줌 기능을 지닌, 보급형이라고 하기엔 섭섭한 아주 괜찮은 캠코더다. 270g의 무게와 콤팩트한 사이즈라 늘 가방 안에 가지고 다니며 촬영하기 좋다.

일렉트로룩스 커피 메이커

아무리 좋은 커피 메이커라도 제때 세척해두지 않으면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없다. '일렉트로룩스 커피 메이커'의 필터 바스켓과 영구 필터는 손쉽게 분리해 씻기 간편하니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어렵지 않게 바리스타급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추운 날씨에 맘을 따뜻하게 위로해줄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들과 오붓하게 나누시길.



20~30대를 위한 2012년 재테크 3대 키워드!



할인 새해에도 대세는 '체크카드'다. 금융 당국은 현재 25%인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30대라면 생활양식과 소비 패턴에 맞게 특화된 체크카드를 눈여겨볼 것. 통신요금, 대중교통 할인은 물론 영화, 서점, 패밀리레스토랑, 놀이공원 할인까지 신용카드 부럽지 않은 혜택이 제공된다.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지름신 강림을 절제하는 부적 역할도 특특히 할 듯. 당신의 새해 다짐 리스트에 '합리적인 소비'를 넣었다면 지금 각 시중 은행의 체크카드를 살펴보자.

절세 당신이 근로자라면 바로 '소득공제'를 통해서 절세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소득공제형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은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준비하는 동시에 소득세 환급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 총 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상한액인 400만원짜리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최대 66만원까지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장기주택마련저축 같은 비과세 상품이나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한다.

적립식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 장기 플랜을 가지고 안전하게 일정 금액을 투자해 목돈을 만들고 싶다면 적립식 상품을 눈을 돌려볼 것. 대표적인 적립식 상품으로는 적금, 펀드, 방카슈랑스가 있다. 적금은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펀드는 분산투자를 통한 수익 추구를, 보험은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목표로 한 상품이다. 이렇게 다양한 적립식 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내 금융 니즈에 맞는 재테크를 설계해보자. 계획을 세웠다면 꾸준한 노력하자.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국민은행 광운대비자점 지점장 방기석



지난달 <티몬매거진>을 아직 못 보셨다고요?

<티몬매거진> 스마트하게 보는 방법!

1. 아이패드, 아이폰 유저

앱스토어에서 탭진을 검색해 다운로드한다.

탭진에 등록되어 있는 <티몬매거진>을 무료로 다운로드한 뒤 구독

2. 갤럭시탭, 갤럭시탭10.1, 갤럭시S2, 갤럭시S2 LTE 유저

단말기에 기본 탑재된 리더서비스 내 텍스트터에 접속해

<티몬매거진>을 검색, 무료로 다운로드한 뒤 구독

EVENT 티몬스토어와 함께하는 <티몬매거진> 1월호 후기 이벤트!

이벤트 참여하고 새해 선물 받자!

돌아온 후기 이벤트의 난이도를 살짝 높였습니다. 자, 이번 호에서 배운 공유 인터뷰 기사를 꼼꼼히 읽었다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 나갑니다~!

공유가 부담스럽다고 언급한 타이틀은 무엇인가요? <티몬매거진> 1월호 후기를 남기고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100분께 티몬스토어의 인기 아이템을 선물로 드립니다. <티몬매거진>과 함께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세요!

참여방법

www.tmon.co.kr 접속 → 오른쪽 상단 '게시판' 클릭
→ '이벤트' 카테고리 내 '티몬매거진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 남기기

댓글 주제

① 1월호 후기 ② 공유가 부담스럽다고 언급한 타이틀은?

응모 기간

12월 27일(화)~2012년 1월 16일(월)

발표

1월 18일(수) 이벤트 페이지에 발표, 개별 문자메시지 전송

상품

휘태커스 블록초콜릿 선물세트(10명), 잔슨빌 소시지(30명), 플로리다 자몽 세트(20명), 닥터영 울트라 모이스트 솔루션 크림(20명), 에스테틱하우스 안티링클 아이크림(10명), 원글리쉬 1개월 외국어회화 수강권(10명)

협찬

휘태커스, 잔슨빌 소시지, 행복누리, 닥터영, 에스테틱하우스, 원글리쉬닷컴



휘태커스 블록초콜릿 선물세트



잔슨빌 소시지



플로리다 자몽 세트



닥터영 울트라 모이스트 솔루션 크림



에스테틱하우스 안티링클 아이크림



원글리쉬 1개월 외국어회화 수강권



MADE IN KOREA

최고의 품질을 위해 국내 생산을 바탕으로 노력하고 있는 한국형 내셔널 브랜드로써 자부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MORE 100 STORE

국내스토어 80여개 매장운영 그리고 해외에도
당당하게 20여개 매장에 진출한
더셔츠스튜디오를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THE SHIRTS STUDIO

www.theshirtstudio.com



GOOD PRICE EVERYDAY SHIRTS

할인으로 인한 한순간의 만족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한 고객만족을 모토로
1년 365가지 스타일의 셔츠를 완성도있게
보여드리고자 끈임없이 노력합니다.



여행이 시작되는 Style Museum

ENTER-6
FASHION SQUARE

EBLIN

국내 유일 유럽의 거리풍경을 주제로 한 엔터테인먼트 패션 쇼핑몰 엔터식스

- ZARA · UNIQLO · ABC-MART · THE NORTH FACE · MANGO · MIXXO · it MICHAA · THE IZZAT · VALENCIA · Kenneth lady · PLASTIC ISLAND
- 'S SOLEZIA · Roem · LINE · ISOUP · Sweet SOUP · LIST · re · LeShop · RYAN · TOPGIRL · JJIGOTT · BONNIE ALEX · jdB
- SHES MISS · AK · VISIT in NEWYORK · MULTA JEANS · Calvin Klein Jeans · GUESS · Levi's · BUCKAROO JEANS · G2
- Nike · adidas · puma · Reebok · Kappa · CONVERSE · Lowe · KOLON SPORT · eiber · K2 · Lafuma · NEPA · Wudle JEANS co
- new balance · NBA · MLB · SPATS · DESCENTE · le coq sportif · LACOSTE · SIEG · ZIOZIA · BASSO homme · ZIO
- TRUGEN · AYA MORIE · Kinloch · renoma · LACOSTE · GIORDANO · us n them · ADHOC · CLURIDE.n
- codes combine · TATE · Andrew · UGIZ · CAUX · BSX · WHO.AU · POLLIAM · TEAMS · Em Polham · TBJ · CHASECULT
- Calvin Klein Jeans · GUESS · LOYCAT · SamsOnite · AMERICAN TOURISTER · HATS · kipling · TIMBUKE · B30R · BSQT · VLANDA · JACQUARD
- FILA · TWINKID · agobang · ELLE · THE DAY · EGOIST · Calvin Klein · Levi's · EBLIN · GUESS · VIVIEN · Triumph · TIME PLUS · cottiny
- OLIVE YOUNG · banila.co · ARITAUM · TONYMOLY · Holika Holika · MISHALL · crocs · the Tiffany · Ego-Trip
- LLOYD · ACCESSORIZE · Green Free · ST · totes · A TWO SOME PLACE · 7-ELEVEN

| 왕십리역점 _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68-1번지 왕십리역사 내 B1 / 1F TEL : 02.2200.6000 | 동탄 메타폴리스점 _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6, 98 메타폴리스 내 A / B동 TEL : 031.371.6900
 | 코엑스점 _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코엑스몰 내 C-16 TEL : 02.6002.0200 | 해운대 스펀지점 _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87-1번지 TEL : 051.709.6000
 | 가든파이버점 Coming Soon. _ 서울시 송파구 송민로 66번지 가든파이버 내 1F 테크노관 / 리빙관 TEL : 02.511.8588